

광주 광산구 TCS 국제학교서 코로나 100명 확진

운남동 소재 ... 135명 검사 26명 음성·9명 검사 진행 중
학생·교직원 122명 집단 합숙 교육 ... 대규모 확산 우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의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광주 북구 소재 광주TCS에이스 국제학교에 이어 광주 광산구 소재 한마음교회에 운영하는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26일 하루만에 100명 이상의 무더기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광주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확진자 발생으로는 최대 규모다.

특히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보육시설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집단감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현재 광주에서 1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633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이날 하루만 광주 광산구 소재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1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이곳 학생과 교직원, 교인 등 13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현재까지 100명이 양성, 26명이 음성, 나머지 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확진판정을 받은 광주TCS국제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6세부터 10대까지 미성년자인데다, 학생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급적 실제 거주지 인근 생활체육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음성 판정을 받은 26명과 검사가 진행 중인 9명은 별도 분리해 격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광산구 소재 광주TCS국제학교는 IM선교회 관련 조직으로, 선교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이며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과 교직원 122명이 합숙 교육을 받아왔다.

이날 광주TCS국제학교 집단감염은 IM선교회 관련 광주 소재 교육시설 전수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3일 광주 북구 소재 빛내리교회가 운영하는 에이스 TCS국제학교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관련 교회와 교육시설 방문자들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이날 현재까지 37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IM선교회 관련 광주 교육시설은 모두 4곳으로,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광주 북구 빛내리교회가 운영하는 '에이스TCS국제학교'와 이날 10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소재 한마음교회가 운영하는 광주TCS국제학교, 그리고 광주 남구 소재 광명서현교회가 운영중인 티론TCS국제학교, 광주 서구 소재 안디코 교회가 운영중인 트리니티 CAS이다.

전남에서는 25, 26일 이틀간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화순 3명, 광양 2명, 여수·함평·신안·영암·순천·나주 각 1명 등 8개 시·군에서 산발적 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사평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 화순지역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사평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확진자(712번)와 접촉한 모야파트 경비원(723번)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723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아파트 CCTV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또 이날 광주에서 거주하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152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를 일시폐쇄하고, 직원 50여 명을 전수 검사 중이다. 전남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TCS 관련 비인가 대안학교가



26일 하루 사이 코로나 19확진자 100명이 무더기로 발생한 광주 광산구 소재 광주 TCS 국제학교 건물.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여수와 순천에도 각각 1곳씩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학생 50여명을 전수 검사하고 있다. 전남 지역 전체 비인가 대안학교 12곳의 학생과 직원 등 관계자 386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오늘 개청 광주경제 도약의 발판 마련했다

광주 경제의 미래인 경제자유구역을 견인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27일 첨단3지구 광주노비즈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3면>

개청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경자청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성공의 핵심인 투자유치를 전담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6월3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전국에서 9번째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

경자청은 광주시 산하 출장소 조직으로 출범하고, 1급 상당인 청장(정장)과 혁신성장본부장(3급), 3부(부장 4급) 9팀(팀장 5급) 등 총 45명 정원으로 구성됐다. 3부는 기획행정부, 투자유치부, 사업지원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국내외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혁신성장 신산업 유치, 규제 특례 활성화를 포함한 신산업 투자지원 업무 등을 맡는다.

경자청은 오는 2027년까지 기업유치 800개를 비롯한 총 1조6279억원의 투자유치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통해 향후 생산 10조3000억원, 부가가치 3조2440억원, 신규 취업 5만7000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경자청 개청으로 산업별 투자유치 전

문인력이 확충·육성됨에 따라 그동안 광주시 투자유치 부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짧은 근무기간에 따른 직원의 비전문성 등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자청 내 전문 투자인력들은 앞으로 광주의 미래 전략산업이 포진한 경자구역 내 4개 산업단지(4.371km)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게 된다. 경자청은 광주시와 함께 경자구역 개발에도 집중한다. 경자구역의 개발 비전을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로 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1조24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선 광주시와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 한국법인, 광주테크노파크 3차 간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 또 광주시와 일본 첨단 재생의료계 개발업체인 Shangri-La Medical과의 기술 및 150억원 규모 자본투자 협약, 산업부, 광주시, 한전 등 10개 산·학·연 기관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구축 협약 등도 진행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경자청 개청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 광주의 꿈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경자구역을 기반으로 청년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미인가 대안학교 30여곳 코로나 '사각'

광주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온 국제학교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알려지면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선교 관련 대안학교나 일반 대안학교, 또는 학원 등의 형태이지만 방역당국은 각 시설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알지 못하는 데다 시설 수나 위치 등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자칫 신천지나 BTJ열방센터에 이은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지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신원동 빛내리교회 건물 1층에 입주한 'TCS에이스국제학교'에서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전수 조사와 함께 지자체 관리·감독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교사·학생·n차 감염 등 모두 37명의 확진자를 양산한 광주의 TCS에이스국제학교와 13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가 모두 IM(Interna-

tional Mission) 선교회가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이라는 공통점에 주시해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광주에 IM선교회가 TCS(Two Commandment School)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3곳과 CAS(Collegiate American School)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1곳 등 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종사자는 물론 모든 방문자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문제는 TCS에이스국제학교처럼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시설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시설임에도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이어서 지금까지 지자체나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출원금·교육과정·교직원 배치 등 조건을 충족한 교육시설을 대안학교로 인가할 수 있다. 인가받으면 '각종학교'로 분류돼 학력이 인정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교육부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단 1곳만

이 대안학교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부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전국에 270여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 마지막이다. 현재는 이보다 늘어 300개 이상 운영될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 광주에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9곳을 포함해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규모는 더 크다. 대안학교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대안교육학회가 전국 대안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540곳이 미인가 대안학교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미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대안교육연대'(대교연)와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한교연) 등 양대 단체에 소속된 경우 비교적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소속 단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교연에는 52곳, 한교연에는 76곳의 학교가 소속돼 있다. TCS에이스국제학교는 이들 중 어느 단체에도 소속돼 있지 않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021년, AI 강국 대한민국이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내 유일 국가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 건설

- 1월 27일, AI 중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2월 초, 세계 TOP 10 'AI 국가데이터센터' 착공

드디어 기업들은 광주에서 세계적인 AI 연구개발 및 실증 테스트 베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력과 상상력만으로도 누구나 창업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 바로 이곳, 광주에서 만들어갑니다